

밀레니얼 세대 '소신 소비'에 지갑연다

브랜드 따지지 않고 구매...기업도 기부·명분 마케팅 나서 국내 클라우드 펀딩 1300억원 규모...투자 트렌드 변화

#1 박성민(32·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씨는 최근 클라우드 펀딩(모금)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20만원대(25만8000원) 노트북을 장만했다. 대기업 노트북과 비슷한 사양의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해 유통 마진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대 6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와 더불어 가격 대비 만족감을 높인 '가심비'를 갖춘 제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 달여 만에 6178명의 서포터가 모여 20억2300만원을 모금했다. 와디즈 펀딩뿐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 역대 최대 금액이다.

박씨는 "대기업 노트북의 경우 중간 유통 과정이나 광고 등으로 거품이 낀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내실을 보고 물건을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2 김경아씨는 "영혼 보내기" 영화를 이미 봤거나 사정상 볼 수 없는 관객이 표를 예매만 하며 좌석 점유율을 높여주는 영화 응원 방법 중 하나이다. 20일 영화진흥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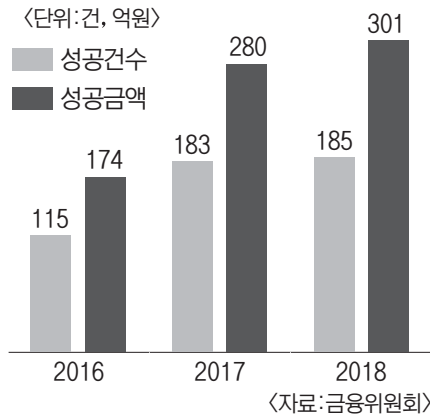
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혼 보내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화 '결갑스'는 개봉 열흘 만에 122만 관객을 넘겼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5~18세에 해당하는 'Z세대' 사이에서 자신의 소신을 녹여낸 소비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며 보람을 느끼는 '덕투' (덕질+투자)와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가치 소비' 성향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또 소신과 들어맞는 상품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칭하는 '소피커' (소신과 소피커를 합친 말)라는 말도 등장했다.

기업은 '명분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수입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앞세우는 식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지난해 실리온 빨대 펀딩 성공률은 6000%에 달했고 남성을 색조 화장 모델로 내세

■클라우드 펀딩 성공건수 및 금액



운 화장품 브랜드는 출시 2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30%가 20대 남성 소비자로 채워지기도 했다.

소신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단연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다. 클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 상품에 이어 출판·영화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며 투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펀딩 시장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로 매년 곱절 이상 커지고 있다. 업계 1위 '와디즈' 모금액은 2016년 106억원, 2017년 282억원, 지난해 601억원으로 누적 1000억원을 넘겼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형'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클라우드

펀딩 주요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114억원(44건)을 마련했다.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지난해(1억6000만원)에 비해 62.5% 증가했다.

단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 원금 손실을 입거나 프로젝트가 연기·무산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클라우드 펀딩으로 발행된 채무증권(만기 만료) 88건 중 3분의 1(30.6%)에 달하는 27건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제품으로 투자금을 보상받는 '리워드형'도 생산자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수리여부와 상품 출시 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7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펀딩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조계현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은 "불경기일수록 고객은 자신의 돈을 더 특별하게 쓰길 원하기에 확실한 콘셉트를 장착한 브랜드들이 승승장구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5.71 (-0.09) 금리(국고채 3년) 1.68 (+0.01)
- 코스닥 702.08 (-12.05) 환율(USD) 1194.20 (-1.50)

중소, 스마트공장 도입 86% "만족"

작업현장·낮은 부담금 이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 86.2%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49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2%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작업현장 개선(63.8%), 낮은 기업 부담금(43.6%),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35.5%)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해당 사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4.7%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제조현장 전문가의 멘토링 활동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운송

(94.3%) ▲섬유·의복·화학·플라스틱(90.7%) 분야 만족도가 높았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인력 운용 계획으로는 교육 후 기존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응답률이 79.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신규인력 채용(24.6%), 외부 전문가 활용(2.8%)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5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우수 사례 방문·견학(33.5%) ▲분야별 특화 교육(31.4%) ▲일대일 현장교육(19.5%) 등이었다.

응답 기업의 93.2%가 향후 사업 유형 고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29년...기네스 도전

매주 금요일 총 1442회 한국기록원에 심의 요청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이 한국 기네스에 도전한다.

20일 광주경총총협회(회장 최상준)에 따르면 광주경총은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금요조찬포럼"을 한국기록원에 "민간단체 주관 매주 1회 최장기간 정기적인 조찬 포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심의를 요청했다.

1990년 6월 1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작된 금요조찬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열린다. 지난 29년 동안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열린 전통과 권위의 명품 포럼이다. 지난 24일까지 총 1442회가 열렸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내년 금요조찬포럼 30주년(총 1500회)을 앞두고 한국기록원 인증을 받고자 한다"며 "기록원은 강원 일시, 장소, 강연자 성명, 강연주

제, 강의집 등이 기록된 문서와 영상, 사진, 제 3차 확인서, 미디어 기록 공시 기록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한다"고 밝혔다.

금요조찬 포럼은 기업 CEO 등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강사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배순훈 대우전자 회장, 정은찬 전 국무총리, 이해인 수녀, 이소연 한국 최초 우주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를 강연했다. 특히 강연내용은 포럼에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케이블 TV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방영하고 있다.

한편, 제1443회 금요조찬포럼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정은찬 전 국무총리가 강사로 나서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이 답이다'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전 7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

대우그룹, '대우위니아그룹'으로 사명 변경

대우그룹이 대우위니아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대우그룹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합가전 브랜드인 위니아를 반영한 통합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명을 대우위니아그룹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1일 사명을 변경하며, 영문명은 '위니아 그룹(WINIA GROUP)'으로 바뀐다.

각 계열사의 사명도 함께 변경해 핵심 계열사인 대우위니아는 '위니아딴채', 지난해 인수한 대우전자는 '위니아대우'로 바뀐다. 박정욱 기자 jwpark@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중장년 채용 계획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구인구직포털 비록시장·알바천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23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62.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의 64.2%보다 소폭 낮은 것이다.

직종별 채용계획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23.3%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영업·마케팅(20.4%), 사무관리(20.4%), 생산·품질관리(19.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이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월 274만원)와 거의 같았으며, 통계청이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국내 평균임금 287만원의 92.3% 수준이다.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7곳(69.9%)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시들지 않는 장미 인테리어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데코하우스는 오는 26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장미 조화 등 진열 상품을 30~7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장관, 4개 단체(태양광·전력·전선·채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3조원 규모) 추진 가능함에 긍정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